

어제의 이민우는 잊어라... 토종 에이스 '도전'

KIA 핫 플레이어

이민우에 의한, 이민우를 위한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KIA의 우선 고민은 '선발진'이다. 브룩스와 멧텐으로 막강 외국인 '원투펀치'가 구성됐지만, 양현종이 빠진 토종 선발진이 고민이다.

일단 KIA는 지난 시즌 선발로 경험을 쌓은 임기영과 이민우로 두 자리를 채우고, 좌완 김요한·이의리·장민기와 우완 김현수·장현식으로 부족한 선발 조각을 맞춰갈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민우'가 KIA 마운드의 키워드가 됐다.

지난 시즌 처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면서 출발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5월 5경기에서 3.23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수확했지만 이후 안정감과 견고함이 떨어졌다.

22경기에 나온 그는 6.79의 평균자책점, 6승 10패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남겼다.

지난해 아쉬운 성적에도 이민우는 올 시즌 선발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자원이자. 어깨가 무거워진 2021시즌은 이민우에게는 기회의 시즌이기도 하다. 부족했던 성적에도 이민우의 2021시즌에 긍정 포인트가 있다. 약속된 자리와 스킴들은 이민우에게 가장 반가운 부분이다.

이민우는 지난해 플로리다 스프링캠프는 물론 시범경기에서 '에이스'로 꼽혔다. 묵직한 직구를 바탕으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선발진 중 가장 꾸준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묵직한 직구... 캠프 기대주
지난해 컨디션 조절 실패로 기록 올 브룩스·멧텐·임기영과 선발진
체력·제구 단련... 개막 기다려져
"양현종 공백 등 책임감 느낀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악재가 거침 없던 페이스를 막았다.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이민우는 하락세 속 시즌을 시작했다.

동료들도 "정상적으로 개막했다면 이민우의 시즌이 달라졌을 것이다"고 말할 정도로 아쉬웠던 2020시즌.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쟁'이었다. 처음 선발진에서 경쟁했던 만큼 좋았던 페이스를 유지하느라 정작 본 무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민우는 "지난해 처음 로테이션 들어가는 거라서 뭔가 (페이스) 낮추려고 하면 안 좋다고 하실까 봐 끝까지 유지했다. 결정 난 게 없으니 페이스 조절 못하고 있다"고 시즌 들어갈 때 떨어지는 타이밍이 됐다"고 말했다.

올 시즌에는 확실한 자리에서, 4월 3일 개막을

기다리게 된만큼 본 무대에 맞춰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체력적인 부분도 준비가 잘 이뤄졌다. 이민우는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 썼다. 지난해에는 확실하게 캠프부터 초반까지는 오버페이스한 탓에 체력이 떨어져 구위도 안 좋고 변화구도 풀리는 게 많았다"며 "오버페이스 안하려고 하고 체력적인 부분을 준비했다. 확실하게 좋아진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투심과 커브도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민우는 "정명원 코치님께서 투심을 권해서 해 보고 있다. 올 시즌 커브 비중을 더 높일 생각이다"며 "지난해 후반기부터 비중을 높였는데 올 시즌 커브를 결정구로 던져볼 생각이다. 프로 와서는 잘 안 던졌는데 정명원 코치님이 대학 때 보셨다고 한다. '대학 때 커브 좋았는데 왜 안 던지냐'고 하셔서 비중을 높일 생각이다"고 밝혔다.

양현종이 빠진 마운드에서의 책임감, 결혼을 하면서 더해진 책임감도 이민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민우는 "작년보다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현종이 형이 없으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옆에 배울 게 많은 선수가 없으니 아쉽다. 기용이 있다가 기용 못 된다고 생각하니 기용이랑 나도 뭔가 모르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며 "와이프가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한다(웃음). 올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우

동성고 투수 코치로 온 국대 출신 고창성

타향에서 새로운 도전
야구아카데미 등 지도자 경험
"선수들 개성 찾아주겠다"



뒤에 유니폼 입을 수 있고, 국가대표로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아는 게 먼저라는 고 코치는 개성을 강조하고 "실수하라"고 말한다.

그는 "선수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 다 똑같을 수 없다. 아이들의 개성을 찾아주고 싶다. 뭘 잘하고, 뭘가 잘 안 되는지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한다. 장점 한 가지만 끌어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야구에는 주전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백업, 불펜, 원포인트도 있다"며 "완벽한 선수는 없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에 3개의 실책을 하는 것도 봤다. 메이저리거도 실수를 한다. 어린 선수가 실수 안 할 수는 없다. 시도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를 하면서도 '도전'을 해보라는 그는 선수 시절 자신의 이야기대로 많은 도전을 했다.

고 코치는 "해외 도전할 때 다 안 된다고 했다. '그만하고 돈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호주 다녀오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경험은 30대 중반에 쉽지 않다.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안 되더라도 스스로 애썼다고 뿌듯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KT에서 1군 경기 던지고 정말 좋았다. 그 전에 포크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중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던질 줄 아니까 포크볼을 안 던져봤는데 경기에서 시도해서 잘 활용했다. 실전에서 안 던져보고 그만 뒀으면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다"며 "시합할 때도 던져보고 실수를 해봐야 안다. 실패를 해봐야 실패인 줄 알고 발전한다"고 언급했다.

선수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고 코치. 이제는 먼저 찾아와 질문을 해주는 선수들이 고맙고 대견하다.

고 코치는 "아마추어 야구가 많이 바뀌었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 많이 힘든데 힘내서 지내고 있다. 팬들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 올린 '신성'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음바페 헤트트릭... 메시는 1골
PSG, 바르사에 4-1 대승



음바페

키 더용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라이빈 쿠르자와의 발에 영커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메시가 페널티킥 키키로 나서 강력한 원발 슈트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PSG에선 음바페가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32분 음바페가 마르코 베라티의 패스를 받아 원발 슈트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전반을 1-1로 마친 PSG는 후반 24분 음바페의 역전 결승골로 승기를 가져왔다. 알렉산드로 플로렌치가 시도한 땅볼 패스가 수비수 맞고 뒤로 흐르자 음바페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원발 슈트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기세가 오른 PSG는 5분 뒤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모이스 킨의 헤딩 슈트로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렸다. 마무리 득점은 음바페가 담당했다. 음바페는 후반 40분 단독 드리블로 바르셀로나 페널티아크까지 쇄도한 올린드 트라슬러의 패스를 받아 기막힌 오른발 슈트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로써 음바페는 파우스티노 아스프리아(전 뉴캐슬)와 안드리 셉렌코(전 디나모 키예프)에 이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작성한 역대 3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K리그 22개 구단, 온라인서 '기싸움'

27일 개막 앞두고 22·23일 리그1·2 미디어데이... 팀별 소감·각오

K리그 22개 구단 감독과 대표선수들이 온라인으로 '기싸움'을 벌인다.

오는 27일 2021시즌 K리그 개막을 앞두고 K리그 22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개막 미디어데이가 22·23일 이틀간 K리그1, 2로 나누어 열린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구단 경기장 또는 클럽하우스를 회상으로 연결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K리그1 개막 미디어데이는 22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개막 라운드 매치업에 따라 두 팀씩 등장해 올 시즌 각오와 개막전에 임하는 소감 등을 밝힌다.

공식 개막전을 펼치는 전북과 서울은 각각 김상식 감독과 홍정호, 박진섭 감독과 기성용을 내세운다.

새로 부임한 양팀 감독의 각오와 함께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주장 홍정호, '캡틴 키' 기성용의 입담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광주는 김호영 감독과 임원상이 미디어데이에 참가한다. 수원에서는 박건하 감독과 김민우가 나선다.

광주는 지난 시즌 처음 파이널A에 진출한 저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수원은 지난해 12월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

며 올 시즌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구는 이병근 감독과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원클럽맨' 김진혁이 참가한다. 상대팀 수원FC는 김도균 감독과 울산에서 수원FC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정동호가 나선다.

포항은 '올해의 감독' 김기동 감독과 '도유왕' 강상우가 참석한다. 조성환 인천 감독은 새로운 주장 김도현과 함께한다.

울산은 K리그 데뷔전을 앞둔 홍명보 감독과 K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이창용이 대표로 나선다. 이에 맞서는 강원은 '병수불' 김병수 감독과 2시즌 연속 주장을 맡은 임재민이 참석한다.

성남은 김남일 감독과 4년 연속 주장으로 팀을 이끌게 된 서보민이 참석한다.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한 제주는 남기일 감독과 안현범이 미디어데이를 기다리고 있다.

K리그2 개막 미디어데이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경남-안양, 전남-충남아산, 안산-김천, 부천-대전, 부산-서울 이랜드순으로 실시된다. 전남에서는 전경준 감독과 주장 이종호가 참석해 올 시즌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미디어데이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와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